

공동체 소식



성령 강림 대축일

하느님, 오늘 이 축제의 신비로, 모든 민족들과 나라에 세우신 하느님의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니, 성령의 선물을 온 세상에 내려 주시고, 복음이 처음 선포될 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이제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 주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 입니다.

- "성령의 강림은 교회의 탄생이며, 믿는 이들을 위한 천상생명의 시작입니다."

※ 오늘은 부활시기의 마지막 날로서, 내일부터 연중시기가 시작됩니다. 미사 중 제2독서 후 '부속가'가 있습니다. 매일미사 47면 참조.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입니다.

- 교회는 해마다 6월을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성심을 특별히 공경하는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성심 대축일을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다음 금요일에 지내는 것은 예수 성심의 사랑이 성체성사와 깊이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라고 하였듯이, 예수 성심은 하느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반 모임 안내

- 내용 : 날자와 장소는 반장님이 주관하여 정하고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6월 맨하탄 공동체와 로렌스 공동체 미사는 없습니다.

이번 주간 중 '사제 모임' 이 알라바마 주 세 개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례 성가

Table with 4 columns: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Values: 142, 217, 180, 493.

주일미사 복사

Table with 3 columns: 시종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다음주일. Values: 정예진 한나, 정예찬 미카엘, 김정원 안젤라, 고평원 프란치스코.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Table with 4 columns: 금주, 차주,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Values: 정수한 베드로,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김대연 요셉, 이우석 프란치스코, 김인자 글라라.

애찬 봉사자

Table with 3 columns: 금주, 차주,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김명은, 한춘희, 장보혜.

헌금 봉사자

Table with 3 columns: 금주, 차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able with 4 columns: 영성체, 헌금, 교무금. Values: 5/28, 52명, 285불, 590불. (총 3세대)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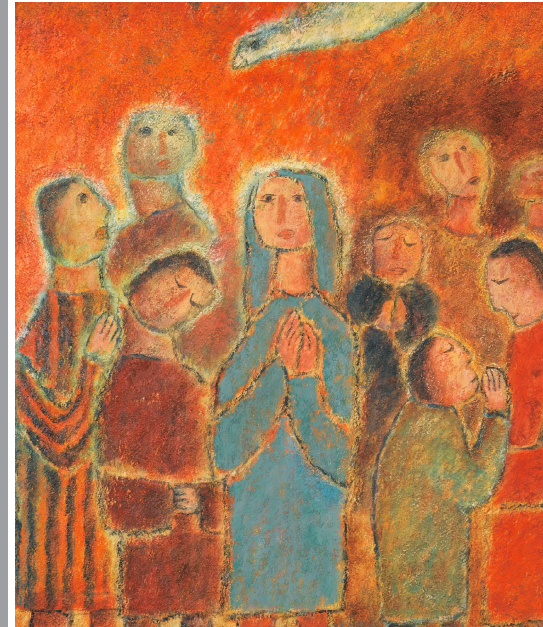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시기를 마무리하는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할 수 없다고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사로 언제 어디서나 공동선을 위해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성화해설

오소서 성령이여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 20,22-23)

유대인들이 두려워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용서와 평화, 기쁨으로 채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성령의 선물을 보내 주십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1-11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우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2,3c-7.12-13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9-23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쉐 마

새로운 시대 막을 열다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온전히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시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힘도 주시어 예수님께 보고 배웠던 바를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이끌어주셨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기쁨을 기꺼이 선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교회는 이러한 성령 강림 대축일을 끝으로 부활시기를 마무리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승천과 성령 강림 사건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 가운데 당신께서 제자들을 떠나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에 걸쳐 강조하시면서도, 당신께서 반드시 다시 올 것이며,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모든 일들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 성령 강림 사건은 새로운 시대의 막을 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도 2,1에 따르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한지 오십 일째 되던 날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오순절이 되면 시나이 산의 계약을 기억하며, 이 계약을 통해 자기 민족이 시작되었음을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오늘을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 탄생한 날, 곧 교회의 생일로 여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본격적으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하느님의 일을 해 나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늘 2독서가 이야기하듯이 성령께로부터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하느님의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1코린 12,8-10). 어떤 사람은 성직자로 자신을 봉헌하여 하느님의 일을 해 나가고 있고, 어떤 이들

은 수도자로서 복음 삼덕을 살아가며 하느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평신도로 살아가면서 다양한 단체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은사와 직분, 활동이 있기 때문에 자칫 서로 다르다고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은 같은 성령의 활동이며, 같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같은 하느님의 일들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당신의 은사와 직분, 활동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시어(1코린 12,11),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하느님의 일을 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은 “공동선”을 위한 것입니다(1코린 12,7). 여기서 교회의 공동선이란 교회 공동체가 일치하여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이처럼 같은 성령에게서 오시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 활동 덕분에 풍요로운 공동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처럼 서로 각자 직무와 은사에 있어서 구분되지만 하나의 공동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각자 다른 지체들이지만 그리스도라는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감으로써 자신의 일이 아닌 하느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아 다시 한 번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받아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해 나가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 그리고 활동은 모두 하느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교회의 공동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들을 자신이 아닌 하느님의 일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을 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몸, 성령의 성전, 하느님의 집을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가 생일을 맞은 오늘 깊이 있게 되새겨 보아야 할 점입니다.

- 염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주춧돌

성체조배란?

6월은 예수 성심을 특별히 공경하기로 교회가 정한 달로서 예수성심성월이라고 합니다. 성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리신(요한 19,34 참조) 심장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어 오신 육화의 신비와 수난과 죽음 그리고 성체성사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성체조배란 성체 앞에서 특별한 존경으로 바치는 신심 행위를 말합니다. 가톨릭교회는 감실(龕室)에 모셔진 성체 앞에서 조배를 합니다. 그리고 성체 안에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수난과 사랑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흠송하는 가운데 ‘성체성사’의 신비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체조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마태 26,26)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1코린 10,17)

그렇다면 감실은 무엇입니까? 감실이란 성당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모셔두는 곳입니다. 감실 안에는 성체를 담은 성합이 있으며 그 밑에는 하얀색 성체포가 깔려 있습니다.

감실은 주로 성당의 제대 중앙이나 제대 옆에 있으며, 성당 안에 단 하나의 감실만을 둡니다. 감실 앞에는 성체를 모셔두었음을 알리고 성체에 대한 존경을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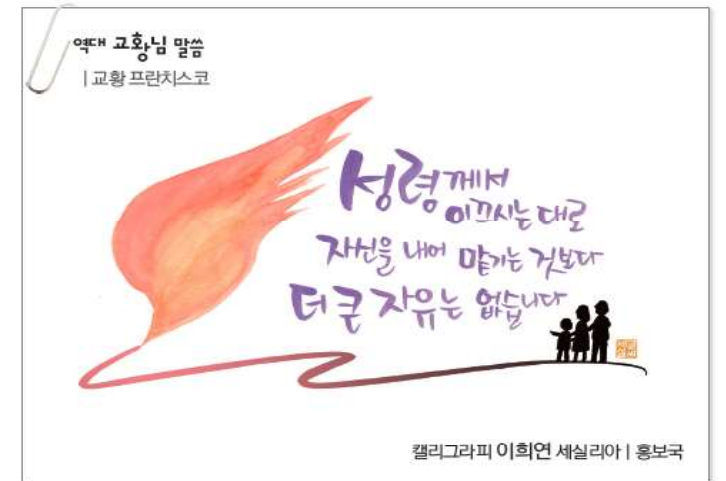
시하는 의미로 빨간색의 작은 램프(성체등)가 켜져 있습니다.

신자들은 감실 앞을 지나갈 때 성체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깊은 절을 합니다. 사제가 미사 후에 성체를 감실에 모셔두는 이유는 첫째, 성당에 올 수 없는 ‘병자’를 방문하여 성체를 영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흠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성 알폰소는 성체조배를 일컬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체조배로 보낸 시간은 인생 중 가장 귀중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게다가 15분간의 성체조배로 얻은 것은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신심행사로 거둔 것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

- 김지영 사무엘 신부 -



복음묵상

평화와 성령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세상이 지옥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면
세상은 천국입니다.

세상 가득한 하느님의 사랑을 알아차리기 위해
세상 가득한 하느님의 성령을 알아차리기 위해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19)

- 임의준 신부